

한국 현대건축, 그 파편들의 콜라주

리뷰: “한국의 현대건축을 말하다”, 고려대학교 초청강연시리즈 2009년 4~5월

Review: “Let’s talk about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Special Lecture Series, Korea University, April~May 2009



김 현 섭 / 정회원, 고려대 건축학과 조교수
Kim, Hyon-Sob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archistory@korea.ac.kr

한국의 현대건축,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작품과 작가, 그리고 크고 작은 담론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우리 건축이 나아가는 방향을 돌아보고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 지난 4월과 5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가 주최한 “한국의 현대건축을 말하다”라는 시리즈 강연은 이와 같은 질문과 전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초청된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김준성(건축대/hAND)과 문훈(문훈발전소)이 각각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홀연히 등장하여 주목을 받아온 건축가들이라면, 임석재(이화여대), 이종건(경기대), 배형민(서울시립대)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우리 비평계에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최고의 평자들이다. 두 건축가를 초청함에 있어서 개별적 작품 활동의 구체적 깊이와 현실을 엿보기 원했다면, 세 비평가로부터는 보다 포괄적 맥락을 짚어주길 기대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임석재 교수로 하여금 강연의 포문을 열도록 한 것은 역시 매우 적절했다 하겠다. 그의 강연 “한국적 추상논의: 1990년대 한국건축의 가능성과 한계”(제 1강: 4월 3일)는 2000년도에 그가 출판한 동명의 저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작가’로서 인구에 회자되던 열아홉 명 대표 건축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김원의 ‘갤러리 빙’(1990)과 김기웅의 ‘성북구민회관’(1990)을 필두로 둘씩의 건축가와 건축물을 쌍으로 대립 병치시키며, 제목에서처럼 ‘추상’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간 방법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현대를 서술하기에 효과적인 전략임에 틀림없다. 임석재 교수에게 있어서 1990년대는 그 이전의 독재기와 압축근대화 시기를 지낸 이후의 ‘작가주의’가 꽃필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였고 실제로 ‘자유로운 실험’과 ‘창작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였다. 즉, 그가 한국 현대건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간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현대건축이 더 우수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적 추상논

의』, p. 9). 이 같은 진단은 한국의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한줄기 빛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연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비판적 색채가 지배적이었다. 저서가 보여줬던 긍정과 비판 사이의 긴장의 끈이 한쪽으로 느슨해졌다고나 할까? 예를 들자면, 유걸의 ‘밀알학교’(1997)나 김준성의 김포 ‘한누리병원’(1997)의 경사도가 보여주는 길의 모티브는 건축가들에게는 현란한 디자인요소이나 실제로는 사용자들의 ‘동선몰이’를 통해 ‘추상이 극단화된 독단적 기능주의’를 드러낼 뿐이다. 또, 김현의 일산주택(1998)은 노출콘크리트와 반투명 유리로 건물 내외부 경계를 닫아버린 ‘자폐적 작가주의’의 대표 격이다. 그나마 ‘산업추상’을 거부하고 공동주택 구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방철린의 다세대주택들(‘스텝’, 1996; ‘하늘마당 II’, 1997)이나 ‘반투명막’과 ‘맥락적 가변성’이 조화를 이룬 조병수의 ‘일산 7자 집’(1997) 등에서 일말의 긍정성을 암시했다고 하겠다.

한국 현대건축에 대한 비판은 이종건 교수의 강연(제 3강: 5월 1일)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강연제목 “Problemat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가 이미 보여주듯 그는 우리의 건축을 신랄하게 ‘문제화’한다. 임석재 교수의 눈과 발이 각 건물의 내외부를 누비며 그것을 관찰하고 음미하고 비판했다면, 이종건 교수에게는 사실상 그것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한국엔 진정한 의미에서 ‘건축’이라는 것이 - ‘현대건축’은 말할 것도 없고 -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건축’ 자체의 의미를 바닥부터 들추는 일에 비중을 뒀다. 그는 니체가 묘사한 ‘마지막 인간’, 즉 소시민적 욕망 안에만 만족해 사는 인간형에 우리 건축가들을 오버랩 시키며, 이에 대한 부정과 초월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초월의 의지 부재는 사유의 무능을 낳으며, 결국 이것이 ‘건축’이라는 ‘잉여욕망’을 만드는 데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요리’가 ‘음식’과 다르고 ‘패션’이 ‘옷’과 다르듯, 이종건에게 있어서 ‘건축’은 ‘건물’

과 달리 ‘쓸모’의 유무를 뛰어넘는 무엇이다. 따라서 그에게 건축은 삶을 담은 그릇이라기보다 또 다른 삶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그에게 건축이 철저히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 예술은 ‘무목적의 목적’이 그 존재근거이다. 이러한 그의 칸트적 견해가 ‘먹고사니즘’과 대량개발에 공공 묶인 우리 건축 현실과 괴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임석재 교수가 강연 말미에 언뜻 하산 파시(Hassan Fathy)의 ‘작업’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사했다고 한다면, 이종건 교수가 지향하는 건축의 구체적 유형은 프랭크 게리, 렘 콜하스, 피터 아이젠만, 알바로 시자 등과 같이 자신만의 예술적 건축어휘를 개척한 거장들의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월적 욕망의 아우라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종건의 방법만큼은 지극히 세속적이라 하겠다. 더불어 그가 서양의 스타 건축가들과 유지한 간격만큼 우리의 건축가들과도 간격을 유지했다면 또 다른 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배형민 교수의 강연 “파편의 힘 Positive Fragments”(제 4강: 5월 15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앞의 비평가들의 것과 구별된다. 첫째는 승효상이라는 한명의 건축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인데, 한 사람의 주도적 건축가를 통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귀납적 전제는 어느 정도 유효성을 확보하는 듯하다. 물론 이 강연은 배형민 교수가 두 해 전에 출판한 『감각의 단면: 승효상의 건축』이라는 목적인 저술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는 승효상의 건축을, 즉 우리의 현대건축을 일단 긍정하고 시작한다는 점이다. 『빈자의 미학』(1996)으로 대변되는 승효상의 언설을 - 자신이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떠나 - 진지한 작업으로 우선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그의 비평은 시작된다. 승효상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축적 사고를 정리하여 비평의 언저리에 내어 놓은 건축가가 우리에게 드물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배형민의 강연은 한 광고회사 사옥인 ‘웰컴시티’(Welcomm City, 2000)를 핵심 사례로 하여 벽, 지붕, 바닥 등의 파편에 얽힌 승효상의 건축개념을 풀어 나간다. ‘웰컴시티’는 기단 위에 서있는 네 동의 몸체나 그 사이공간의 긴장감에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기단 위의 네 여인’(1950)을, 그리고 건물 벽에 사용한 코르텐 강판에서 리처드 세라의 ‘토크 엘립스’(1997-2000)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조각품들이 서구적 인본주의 전통 아래 자기완결성을 갖는 반면, 승효상의 건축은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드러낸다. 지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얇은 벽면의 이미지가 전통적 구조물의 논리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의 각 부분들

이 갖는 파편적 관계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알도 로시의 드로잉 ‘L’architecture assassinée’(1974)는 이미 서구 건축의 전통이 무너진 모습을 암시하지 않았나?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각각의 파편이 다시금 얼마나 창조적으로 결합되느냐 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효상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대건축의 모습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비평가들의 씨줄을 엮어 우리 현대건축의 피륙을 짓는 것이 바로 현장 건축가들의 날줄이다. 어찌 보면 이들은 평자들의 ‘거대담론’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작업에 침착하다. 그러나 의식을 하든 못 하든 건축가들 사고의 바탕에는 인류 사상의 흐름이 면면히 운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구체적 건축행위 자체는 역으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위한 자양분이 된다. 그 좋은 한 예가 건축가 문훈의 ‘유치찬란 판타지’(『공간』 200705)이다. 그는 이번 강연 “Story & Action Architecture”(제 2강: 4월 17일)에서 자신의 대표작인 ‘新몸샴’(2005), ‘S-MAHAL’(2007), ‘옹달샘’(2007), ‘정선 Tale’(2007) 등을 보였는데, 이러한 산해진미는 현대건축이라는 용기에 정통으로부터의 일탈을 한 움큼 넣고, 섹슈얼리티 두 스푼, 사이비 컬트 한 스푼에 약간의 어눌한 공상과학적 조미료를 적당히 버무려낸 문훈만의 특선 요리이다. 이 모든 건물에는 스토리가 있고, 결국 각 건물은 새빨간 불꽃을 내뿜으며 달나라든 어디든 현실 너머 환상의 세계로 날아간다. 한마디로 그의 건축은 지나치게 진지한 우리네 건축문화에 유쾌한 상상력을 불어넣었다고나 할까? 레비우스 우즈(Lebbeus Woods)의 스케치에 어딘지 모를 미래 문명에 대한 어두움이 내포되어있다면, 문훈의 드로잉은 여전히 쾌활하고 낙천적이다. 정작으로 ‘유치’하여 ‘찬란’하다. 그동안 ‘호모 사피엔스’에 억눌렸던 ‘호모 루덴스’의 ‘놀이’가 지극히 보수적인 건축의 영역에 외설적인 모습으로 물질화된 셈이다. 언제까지 그의 ‘옹달샘’이 달나라 토끼를 맞이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나, 아직 그의 파티가 끝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문훈과 함께 꾸었던 판타지는 건축가 김준성에게로 와서 다시 현실과 대면한다. 그러나 그의 건축적 배경 역시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 그의 스승인 스티븐 홀이나 알바로 시자의 건축이 갖는 현상학적 힘이 우리의 건축 체험을 ‘사상(事象) 그 자체로’ 돌리기 때문이다. 김준성 교수의 강연 “건축과 도구 Architecture and Tool”(제 5강: 5월 29일)은 예와 다름없이 홀과 시자의 건축에서 시작한다. 굳이 메를로 폰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김준성은 홀의 ‘팔라조 델 시네마’(1990)나 시자의 ‘레사 다 팔메이라 수영

장'(1966)이 제공하는 깊숙한 오감의 성찬에 온몸이 전율함을 과시한다. 그가 서양의 두 거장들을 자기 건축의 출발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미 닳아버린 전략이자 태생적 숙명일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스승들에게서 배운 감성의 폭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부단히 채찍질한다는 사실이다. 그의 태도와 언설은 명백히 디오니소스적이었다. 다만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그의 작품이 이러한 성향을 얼마나 두껍게 반영하는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그의 변화는 강연의 주제인 '도구'와 직접 결부된다. 그는 스승들의 전통적 도구(흙의 연필과 수채화, 그리고 시자의 볼펜 스케치)를 넘어서서 디지털 툴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디지털 툴이 있었기에 신촌 '아트레온'(1999)의 흰 유리면이 가능했고, 헤이리 커뮤니티센터(2001)의 유리면 지도문양이나 '한길 북하우스'(2004)의 벽면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준성의 강연은 한국 현대건축의 방법론적 측면의 한 예를 보여줬다 하겠다.

다섯의 비평가와 건축가들이 말한 한국의 현대건축은 진지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편적이다. 이미 강연자의 섭외에서부터 담론의 파편화는 진행된 것 아닌가. 역사란 여차피 선택적이다. 이 조각들을 짜 맞추었다고 전체 퍼즐이 완성될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 파편들은 힘이 있다. 번득이는 파편들이 우리 현대건축의 심층을 여기저기 도려내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파편은 배형민 교수가 논한 '건축물' 차원과는 또 다른, 그 건축물들을 하나의 서사구조로 엮어내는 '역사기술'(historiography) 차원의 것이다. 이 파편들의 콜리주가 중첩되고, 충돌하고, 화해하여 한 가닥의 담론이라도 형성했다면 이 강연 시리즈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리튼 스트라치(Lytton Strachey)가 이야기하듯 '최근의 역사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에서 날카로웠던 파편의 날들이 무더질 때에야 비로소 지금의 건축을 보다 쉽게 역사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자 과제이다.□

2009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초청강연 시리즈

한국의 현대건축을 말하다

Let's talk about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한국의 현대건축,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작품과 작가, 그리고 담론의 풍수 속에 우리는 우리 건축이 나아가는 방향을 둘러보고 싶어할 필요가 있겠다. 2009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한국 현대건축의 실마리를 찾아내서 훌륭한 강연자로 있는 다섯 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의 현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질문과 다양한 시각의 질문들이 서로 엮여 하나의 콜리주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 건축의 지평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 창의관 117호, 2009년 4, 5월 격주 금요일, 오후 5~7시

제 1강 (4월 03일, 금)	
"한국적 추상논의: 1990년대 한국건축의 가능성과 한계"	임석재 이화여대교수
제 2강 (4월 17일, 금)	
"Story & Action Architecture"	문훈 문훈발전소 대표
제 3강 (5월 01일, 금)	
"Problemat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	이종건 경기대 교수
제 4강 (5월 15일, 금)	
"파편의 힘 Positive Fragments"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
제 5강 (5월 29일, 금)	
"건축과 도구 Architecture and Tool"	김준성 건국대 교수

■ 문의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http://archi.kaera.ac.kr / 02-3290-3330)
- 고려대학교 건축역사연구소: 김현철 교수 (archistory@korea.ac.kr / 02-3290-3343)
- 리승 조교 (kwaks@korea.ac.kr / 011-9918-9897)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